

조선시대 봉수군의 주거에 관한 연구 -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welling of Signal-fire Military in Chosun Dynasty - Based on the Gyungsang Province -

이철영* 윤재웅**
Lee, Chul-Young Yoon, Jae-Woong

Abstract

To design common facilities that support residents' leisure activities is one of the contemporary issues in Korea. People became interested in the leisure facilities in near-home environments. This trend encouraged this research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eisure facilities in apartment communitie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leisure facilities, and to suggest design considerations for Korean multi-family housing communities. Subject communities are located in the five metropolit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The 460 apartment communities were randomly selected after a thorough review of a website for apartment finders. Among them, the 126 communitie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Primary findings are as follows: (1) A total of 30 facilities were identified as the creational facilities in apartment properties. (2) Some leisure facilities were correlated with the other facilities, based on th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3) In addition to the facilities, some apartment communities provide leisure programs for their resid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rchitectural interventions and maintenance services as well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lead diverse leisure activities for residents.

Keywords : Multi-family Housing Properties, Leisure Facilities, Correlations among Facilities

주요어 : 봉수군, 주거지, 배치특성, 평면구성, 주거문화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시대의 주거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를 구성하였던 다양한 계층의 주거형태와 건축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조선시대 주거건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반층의 반가나 서민들의 민가를 대상으로 주거의 배치계획이나 공간적 특성을 밝히는데 치중되어 왔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상이 투영된 '살림집'이 조선시대 주거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보편적인 주거유형이 될 뿐만 아니라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살림집'에 집중된 연구 성과가 조선시대 주거사의 체계화와 성격규명이라는 일차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식과 토대를 제공하였지만 주거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

잖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살림집' 위주의 편향된 연구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와 특수기능을 수행하였던 주거유형에 대한 조사와 자료발굴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주거사 연구의 외연을 넓혀야 할 것이다.

봉수는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어온 관방시설(關防施設)의 하나로 주연야화(晝煙夜火)의 신호체계를 이용해 변경의 군사정보를 주변지역과 중앙에 신속히 알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군사통신시스템이었다).

봉수는 이미 조선전기에 다섯 개 노선의 봉수망이 정비되면서 전국적으로 약 600여개 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각 봉수대에는 많은 수의 봉수군이 배치되어 후망(候望)과 거화(擧火), 시설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더불어 봉수군이 기거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봉수군이 생활하였던 주거공간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결과나 논의

*정회원, 울산과학대학 공간디자인학부 부교수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복지주거학과 교수

1) 김주홍외(2003), 한국의 봉수, 눈빛, p.5

는 전문한 실정이다. 이것은 봉수에 대한 그간의 연구나 조사가 주로 사학자나 고고학자들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연구의 대상이 주로 봉수의 제도사적인 측면이나 거화시설인 연대(煙臺)와 연조(煙籠)의 구조분석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뚜렷한 현존 건물유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봉수대에 대한 고고학적인 시·발굴조사 결과, 다수의 봉수대 유구에서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많은 지방단체들에 의해 호국정신의 계승차원에서 이들 봉수대 일곽에 대한 정비·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정비·복원사업이 완료된 봉수대에서는 봉수군의 주거에 대한 지식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연대나 연조만을 축조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령 몇몇 조사보고서에서 봉수군의 주거공간에 대한 복원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추정도를 그려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봉수군의 주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도로서 문헌자료와 조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봉수군의 주거공간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봉수군의 주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진행과 복원사업의 계획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조선시대에 축조되었던 봉수대는 1894년 근대적인 전화통신의 등장으로 인해 봉수제가 폐지되면서 대부분 훼손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봉수대 유구는 대부분 연대부만 붕괴된 상태로 남아있다. 봉수대의 거화 및 방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체인 봉수군이 사용하였던 주거시설이나 부속건물이 건립 당시의 형태로 현존하는 것은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대부분 문헌자료와 시·발굴조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輿地圖書(1760), 獻山誌(1786), 慶尙道邑誌(1832), 南木烽燧別將書目(1889) 등의 고문헌상에 나타난 봉수관련 비치물목(備置物目)을 고찰하여 건물의 규모와 형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여지도서에서 보이는 각지 봉수 도표를 이용하여 주거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봉수군 주거건물의 보다 명확한 구조과악을 위해 최근 간행된 봉수대 관련 정밀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주거지의 평면형태, 크기, 구조, 온돌시설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에 걸쳐 비교적 유지가 잘 남아있는 경상도 지방의 봉수대를 답사하여 전반적인 현황과 배치방식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봉수의 구조와 조직

1. 봉수의 구조

봉수(烽燧)는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통해 변경과 내륙의 위급 상황을 중앙[兵曹]과 지방[鎭堡]에 전하기 위해 설치되어졌던 군사·통신제도이다. 이러한 봉수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가 아닌 한국고대 삼국시대부터 발달된 중국의 봉수제²⁾를 받아들여 원시적인 형태로 활용되어졌다. 이후 고려~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직접 봉수를 관장하며 점차 체계적인 봉수망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큰 사변시 불거(不擧)에 따른 실제 효용여부가 논의되어 조선후기에는 파발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구한말 전보통신의 등장으로 전국의 모든 봉수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봉수는 노선에 따라 직봉과 간봉으로 구분되며, 성격에 따라 경봉수(京烽燧)·내지봉수(內地烽燧)·연변봉수(沿邊烽燧)로 구분된다. 이외에 조선후기 서양 이양선의 침입에 대비하거나 연변지역의 군사적으로 중요하였던 영진(營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본읍으로만 연락하도록 운영되어졌던 권설봉수(權設烽燧)가 있다.

봉수는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는 봉수대 유구와 최근의 고고학적인 시·발굴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연대와 호(壕) 또는 방호벽(防護壁), 봉수군의 주거지 등으로 구성된다.

연대는 봉수대의 핵심적인 거화(擧火)시설로 항시 1거 또는 비상시의 거화를 위해 축조한 높이 3m 내외의 토축, 석축 또는 토·석 혼축의 인공적인 시설물을 말하며 연대 상부 중앙에는 공통적으로 원형 혹은 방형의 연소실이 마련되어 있다.

방호벽이나 호는 방어나 방화용 시설로 방호벽은 방화벽이라고도 하며, 연조의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막거나 봉수군이 나쁜 짐승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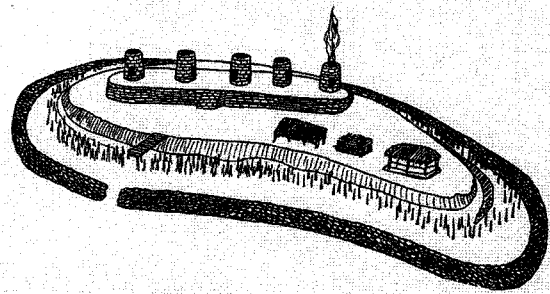


그림 1. 연변봉수 추정도³⁾

2) 李睟光曰 --(前略)-- 唐書 以爲鎭戍烽候 率相去三十里 有一炬二炬三炬四炬者 每夜舉一炬 爲之平安 餘則隨寇多少爲差云 我國烽燧之法 蓋用唐制耳 (『增補文獻備考』卷123, 兵考15 烽燧1)

3) 이 그림은 손영식(1996), 전통과학건축, 대원사, pp.24~25.의 도면을 재작성한 것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는 성곽의 해자(垓字)와 같이 봉수 둘레에 방어 목적에서 판 도랑으로 참(塹) 또는 갭참(坑塹)이라고도 부른다.

주거용 건물은 봉수군이 근무를 하면서 비바람을 피하고 취사를 하기 위한 시설로 봉수군의 생활시설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물 내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봉수마다 1石⁴⁾에서 10石까지 비축하고 있었던 쌀[待變糧米] 외에 밥솥[食鼎]·가마솥[釜子]·수저[匙子]·沙鉢 등의 취사비품과 물통[水曹]·물독[水瓮·水缸]·표주박[瓢子] 등의 음수용 비품 및 흑한기 난방을 위한 화로 등 각종 비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⁵⁾.

2. 봉수군의 조직

봉수군은 봉수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었는데 대개 별장(別將)·감고(監高)·오장(伍長) 및 봉수군과 봉수군보로 편성되었다. 별장·감고·오장은 봉수를 감독하였던 감독관으로 봉수대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수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봉수군보는 일정액의 보포전(保布錢)을 봉수군에 납부함으로써 봉수군의 군역을 도와주는 구실을 하였다.

봉수군은 봉졸(烽卒)·봉군(烽軍)·봉화간(烽火干)·간망군(看望軍)이라고도 불리는데 봉수대에 常居하며 실제적으로 순찰과 후방, 거화 및 방비시설의 관리 및 보수, 거화재료의 확보 등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각 봉수대에는 3~6명이 배치되어 5~6일씩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II. 봉수군의 주거 특성

1. 주거지의 배치유형

금번의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주거지(住居址)나 시설물을 위요하였던 방호벽이 확인되는 32개의 봉수유구를 연대와 주거지의 배치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연대 단독형은 특별한 주거건물지 없이 연대만 배치된 형식을 말하고 일곽형(一廓形) 혹은 단곽형(單廓形)은 방호벽이나 호로 둘러싸인 하나의 영역내에 연대와 주거지가 함께 배치된 형식을 말한다.

또한 연결형(連接形)은 방호벽이나 호 등에 의해 구획된 2개의 영역이 바로 연결하여 배치된 형식을 말하고 분리형(分離形)은 연대와 주거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된 형식을 가리킨다.

연대 단독형은 현지 지표조사에서 뚜렷한 주거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봉수로 과거 봉수대가 축조·운영될 당시에도 주거용 건물이 건립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해

표 1. 연대와 건물지의 배치유형

구분	배치형태	봉수사해	
		연변봉수	내지봉수
연대 단독형		영덕 광산봉수 제주 토산봉수 여수 돌산도봉수 강화 화개산봉수	
일곽형 (一廓形)		울산 유포봉수 기장 아이봉수 서천 운운산봉수	
연접형 (連接形)		울산 이길봉수 사천 각산봉수 남해 대방산봉수 경주 하서지봉수	부산 계명산봉수 양산 위천봉수
분리형 (分離形)		울산 천내봉수 함안 파산봉수 고성 좌이산봉수 고흥 유주산봉수	울산 부로산봉수 공주 월성산봉수 아산 연암산봉수 성남 천림산봉수

범례 : ○ 연대 봉수군 주거지 ●●●● 방호벽·호

서는 현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봉수성격별 배치유형을 살펴보면 연변봉수의 경우 4가지 배치유형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반면 내지봉수는 연결형과 분리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봉수군 주거지의 배치유형이 4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데에는 무엇보다 지형적 조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기능적인 면이나 방어상의 용이성에서 볼 때 기장 아이봉수처럼 일곽형이 가장 효율적인 유형이지만 지형적 조건상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연결형이나 분리형처럼 정상부에 연대를 두고 이 보다 낮은 배후 완경사지나 평탄지에 주거지를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거형태 및 공간구성

1) 고문헌자료 분석

봉수군이 생활하였던 거주용 건물이나 각종 거화재료 및 비치물품을 보관하던 고사(庫舍)와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지리서나 읍지의 비치물목에 부분적이거나 언급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지리서와 고문서상의 비치물목은 총 7개로 이들 비치물목들에 기록된 봉수대 건물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문헌자료상에 나타난 건물관련 기록들을 분석해 보면 위천봉수와 금성봉수는 주거용 건물과 창고 또는 假家를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어 두 건물이 별도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고성산봉수와 소산봉수는 건물 등의 구분없이 단지 칸수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대다수 봉수대가 입지한 지형적 여건과 건물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해 볼 때 고성산봉수와 소산봉수도 건물이 6칸 규모의 한 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6칸이라 기록은 봉수대 내 건물의 전체 칸수를

4) 달리 섬으로 통용. 용량의 단위로서 한 말의 열 갑절. 1石[섬]은 즉 10말

5) 김주홍, 경상지역의 봉수(II), 실학사상 연구 23호, 2002

표 2. 각종 문헌자료상의 건물관련 기록 일람표

붕수명	내용	규모	문헌	성격
울산부 남북붕수	장대기와집 (將臺瓦家)	3間	南木烽燧別將書目 (1889)	연변붕수
	봉군 초가 (臺直草家)	3間		
양산군 위천붕수	기와집(瓦家)	2間	輿地圖書(1760)	내지붕수
	창고(庫舍)	2間		
삼가현 금성붕수	초가(草家)	2間	輿地圖書(1760)	내지붕수
	가가(假家)	2間		
연양현 부로산붕수	와가(瓦家)	4間	獻山誌(1786)	내지붕수
금산읍 고성산붕수	尾(瓦?)家	6間	慶尙道邑誌(1832)	내지붕수
금산읍 소산붕수	尾(瓦?)家	6間	慶尙道邑誌(1832)	내지붕수

나타내며 실제로는 위천붕수와 금성붕수처럼 별동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주거용 건물의 규모는 대개 2~3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형태는 금성붕수를 제외한 모든 붕수가 기와집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붕수대의 특성과 당시 붕수군에 대한 벌칙조항 중 붕수군이 붕수대 부근에서 방화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엄격한 처벌조항이 있음을 고려할 때 화재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와집을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2) 여지도서의 붕수 도표 분석

여지도서(1760)에는 다수의 붕수가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그림은 붕수대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였다기보다 하나의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대와 주거건물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붕수대 시설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여지도서(1765)』에서 보이는 각지 붕수 도표

성주목	인동부	금산군
진주목	하양현	상주목
부안현	고성현	함경도 안변부

연대와 함께 묘사된 건물의 형태는 대부분 기와집으로 나타나며 규모는 3~4칸 정도이다.

3) 시·발굴조사 사례

(1) 고성 좌이산붕수

경상남도 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된 고성 좌이산붕수는 지표조사결과 연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정상부 동측 아래쪽에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북쪽과 동쪽, 남쪽 암반 끝부분에 담장을 두르고 그 사이에 건물지를 배치한 것인데,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담장 내부에는 자연암반이 2부분으로 넓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스듬히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다.

건물지의 중앙에는 자연암반이 넓게 노출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동쪽과 서쪽부분에서 건물지 기반석으로 추정되는 석렬(石列)이 2열로 축조되어 있었다. 동쪽에서도 석렬은 역시 2열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부에는 폭 100cm의 크기로 불에 탄 판석들이 세워져 있었고, 붉은 소토(燒土) 알갱이와 목탄들이 많이 출토되어 연조(아궁이)시설로 추정되었다. 아궁이 부분은 북쪽으로 이어지며 암반을 가공하여 깊이 40cm의 골을 형성하고 있었고, 암반과 석렬 사이에는 온돌시설에 사용하는 판상의 점판암들이 부서져 있었다. 이러한 골은 북쪽편 석렬에서도 이어지는데 내부 석재들이 모두 검게 그을려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기가 흘러 나갔던 연도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 나타난 현상을 토대로 건축물은 기단이 1,015cm×630cm, 건물이 830cm×500cm 정도의 크기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구조는 출토유물 중 기와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와를 얹은 팔작지붕 형태의 와가였을 것으로 추측하였고, 건물 남쪽면과 동쪽면 아궁이 위치까지는 폭 100cm 정도의 빗마루가 시설되었을 것으로 보았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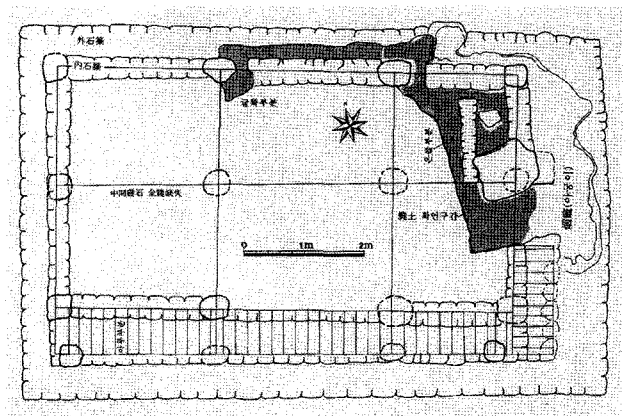


그림 1. 건물지 추정 평면도

6)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1999), 佐耳山烽燧臺地表調査報告書, pp.2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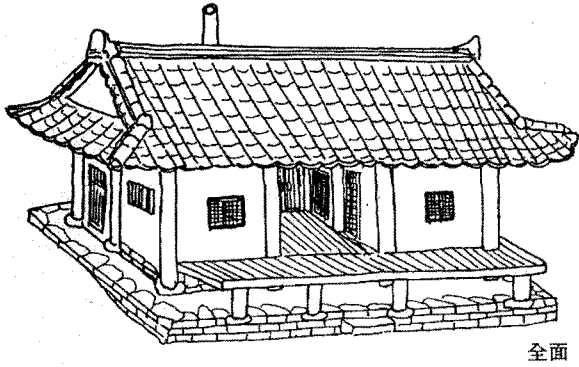


그림 2. 건물지 추정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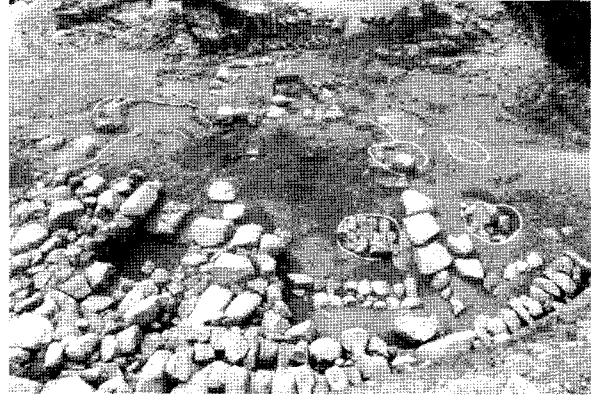


그림 4. 건물지 전경

(2) 기장 아이봉수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된 기장 아이봉수에 서도 방호벽 내부의 추정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상부와 하부에 건물지가 중복되어 있음이 밝혀졌는데 상부 건물지는 기단석만 남아 있으며 하부 건물지는 초석 및 적심석만 잔존하고 있었다. 특히 상부 건물지는 남쪽 출입구 쪽으로부터 북쪽으로 4개의 석렬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석렬을 통해 보면 3개의 실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며 모두 서북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실의 규모는 대체로 가로 240~260 cm, 세로 220~260 cm 규모로 석렬은 평면 원형의 방호벽에 접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방호벽 쪽은 공간이 넓으며 개방된 쪽으로는 30~40 cm 정도가 좁은 편이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제1석렬은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출입구의 동벽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건물지와 별개의 석렬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장 북쪽에 있는 제4석렬은 남쪽의 3개 석렬과는 각도가 달라 평면상 내부의 활용성이 다소 의문시 된다. 따라서 상부 건물지의 석렬 중 제2석렬과 제3석렬이 가장 확실한 공간을 이루는 유구로 평면 구조상으로 볼 때 사람이 기거하기에는 공간이 좁아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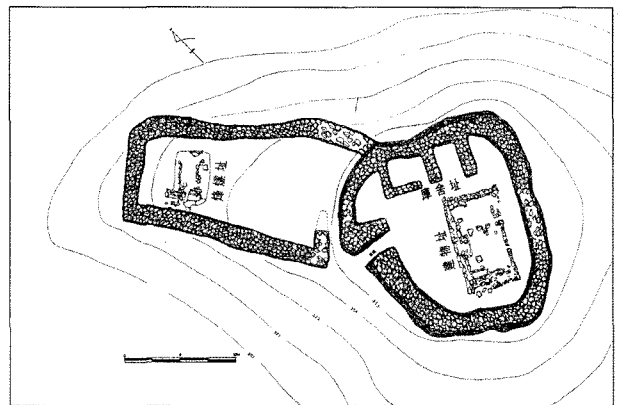


그림 5. 전체 배치평면도

수의 창고로 추정되며 가장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양산 위천봉수

경상남도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는 위천봉수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의 산정상부 해발 325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991년 원적산봉수대보존회에 의해 복원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지표조사 후 현재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표조사를 통해 봉수는 동서 장축의 활석으로 쌓은 주변 석축이 있고 정상부인 동쪽은 둥글게 쌓아 그 속에 와가와 고사(庫舍)를, 그리고 서쪽은 능선 정상부를 따라 경사지게 장방형으로 쌓고 그 속에 화덕을 배치하였다.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는 정상부는 주변에 타원형 석축이 둘러져 있는데, 남쪽 부분의 경우 바깥쪽 227 cm, 안쪽 90 cm 높이이고, 그 폭은 170 cm이다. 입구는 서남쪽에 있으며 높이 100 cm, 폭 105 cm 정도 크기이고 문이 있던 흔적은 없다.

와가는 서향인 정면 3칸, 주간 거리 250 cm, 측면 2칸, 주간 거리 150 cm 규모의 맞배지붕의 기와집으로 조사 당시 축대와 초석이 남아 있었으며, 온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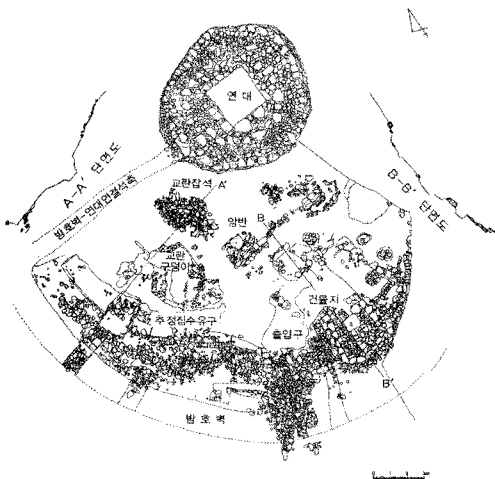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배치평면도

7) 釜山博物館(2004), 機張郡 孝岩里 爾吉烽燧臺, pp.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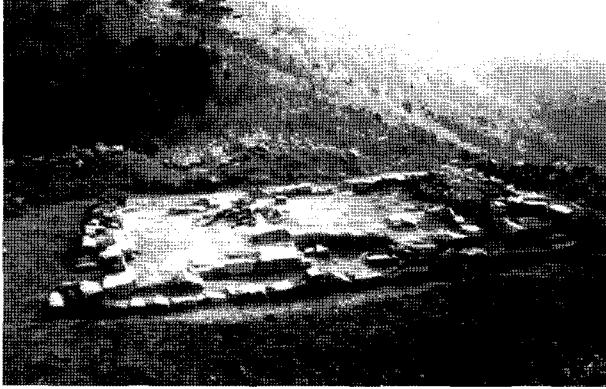


그림 6. 건물지 전경(발굴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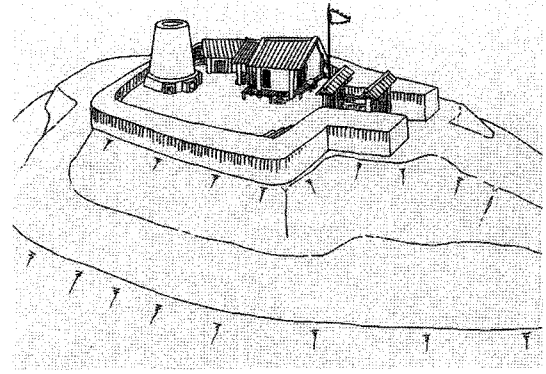


그림 8. 추정 복원도

(4) 밀양 추화산봉수

밀양 추화산봉수대는 밀양 시가지 동북쪽에 위치하는 해발 243.4 m의 독립된 야산 정상부 제2봉에 축조되어 있다. 2001년도에 유구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결과 봉수대내에서 북쪽 담장에 덧붙인 건물지 2동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2동은 방향을 달리하면서 서로 이어지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문지에 가까운 건물지는 전체길이 670 cm, 폭 530 cm 가량이며 다시 동서 방향 2칸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동쪽 1칸은 3면에서 검붉게 탄 소토들이 출토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아궁이를 가진 온돌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서쪽 1칸은 마루와 같은 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곳에서는 토기류 파편들과 기와편들이 담장벽 가까이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와가 건물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측에 나타나는 건물지는 전체 길이 680 cm, 폭 300 cm 가량이며 상기 건물지에 딸린 부속 건물지로 추정되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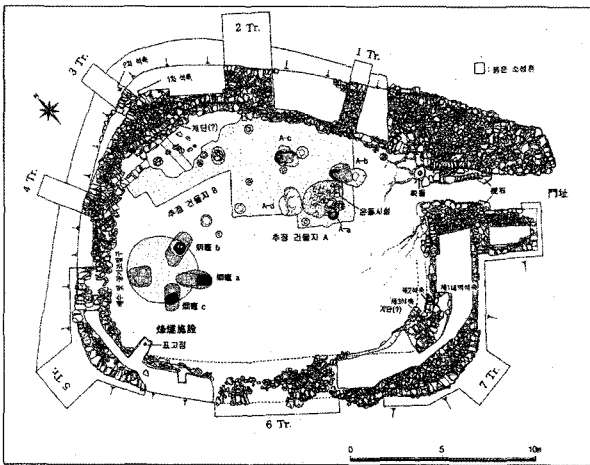


그림 7. 전체 배치평면도

(5) 진주 광제산봉수

광제산봉수는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덕곡리 산 1번지 광제산(해발 472 m)의 남봉 정상부에 위치한다. 2003년 2월 시굴조사를 거쳐 2004년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결과 연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온돌과 아궁이, 부속 건물지의 창고지 등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건물지는 북서쪽에서 동서 10 m, 남북 3 m, 총 30 m²의 면적으로 동서장축이며 정남향에 위치하여 있고 동편으로부터 제1건물지·온돌·아궁이(부속공간)·제2건물지·창고지로 배치되어 있다.

아궁이 작업공간과 동·서 온돌유구는 동일 공간의 건물이나 부속과 접해 있는 창고지는 독립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다. 발굴조사시 건물지에 흔히 확인되는 초석, 적심, 수혈 등의 유구가 전무하고 기와가 전혀 출토되지 않아 초가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온돌의 구들 높이를 약 30 cm 달리 시설하여 온돌방 내부를 동·서 양쪽으로 분리시켰으며 양 온돌의 온기유지를 위해 아궁이를 동서 양편에 설치였는데, 온돌유구의 전체길이는 동서 6 m, 남북 3 m, 총 18 m²로 2칸의 온돌방구조로 추정하고 있다.

창고지는 북서쪽 돌담 하부에서 조사되었는데, 가로 2.4~2.6 m, 세로 2.1~2.2 m 규모로 방형의 이중 석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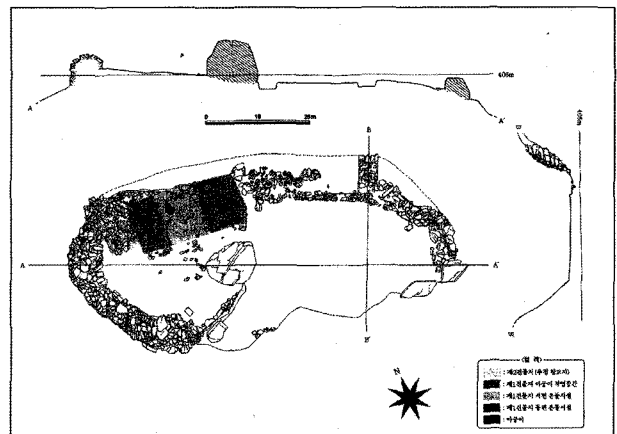


그림 9. 전체 배치평면도

8) 東亞大學校博物館(2001), 密陽 推火山烽燧臺 試掘調査報告書, pp.66-71.



그림 10. 추정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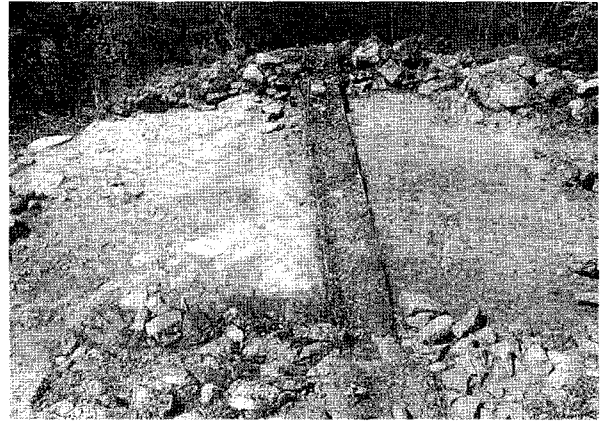


그림 12. 건물지 전경

삼면을 에워싸고 그 내부에 돌들이 깔려있는 상태이다.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좁은 공간으로 창고지로 추정하고 있다⁹⁾.

(6) 충주 주정산봉수

충청북도 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된 주정산봉수는 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와 괴산군 장안면 추절리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440.2m의 산능선 정상에 소재하고 있다. 이 봉수는 국내 최초로 1995년 4월에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를 통해 방호벽을 두르고 등(磴)을 갖춘 출입구와 연조,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봉수대보다 한층 낮은 동서 8.5m, 남북 6m 규모의 남쪽구역에서는 다량의 기와, 불뎀자리 흔적과 숯이나 재, 수저 등이 출토되고 있어 봉군이 항상 머무르는 집과 각종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건물의 규모는 공간의 크기로 볼 때 부엌을 갖춘 최대 3칸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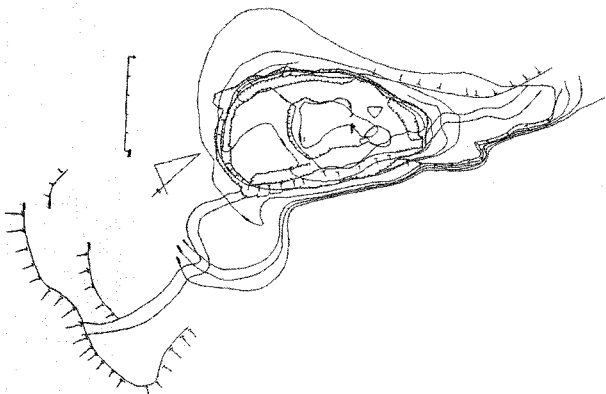


그림 11. 전체 배치평면도

(7) 울산 유포봉수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3호인 유포봉수대는 2003년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지표조사가 지닌 한계로 건물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방호벽의 규모나 방호벽 내 남서쪽에 넓은 공지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건물지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추정하였으며 유포봉수의 정비·복원차원에서 봉수군 관련 건축물의 복원안¹¹⁾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하되 한칸은 방으로, 한 칸은 곳간의 용도로 계획하였다. 또한 건물의 구조는 주위에서 기와편이 수습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진각지붕을 얹은 목조와가로 하고, 양식은 굴도리 3량가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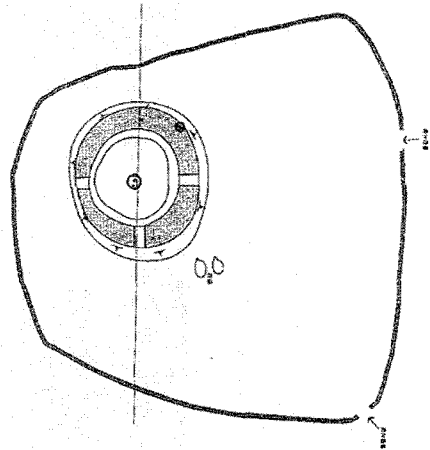


그림 13. 전체 배치평면도

(8) 울산 천내봉수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천내봉수대는 동구 화정동 해발 120.2m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에 자리잡고 있다.

2004년 실시된 학술조사에 따라 연대, 호, 건물지 등

9)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2003), 晉州 廣濟山 烽燧臺 試掘 調查報告書, pp.26-31.

10)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1997), 忠州 周井山 烽燧臺 試掘 調查報告書, pp.24-25.

11) 울산광역시 복구청(2003), 우가산 유포봉수대,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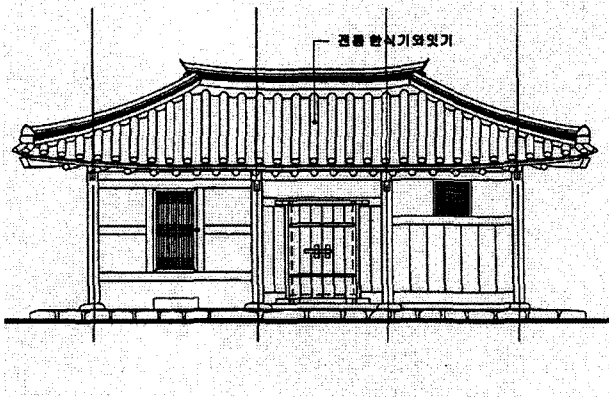


그림 14. 봉수군막사 추정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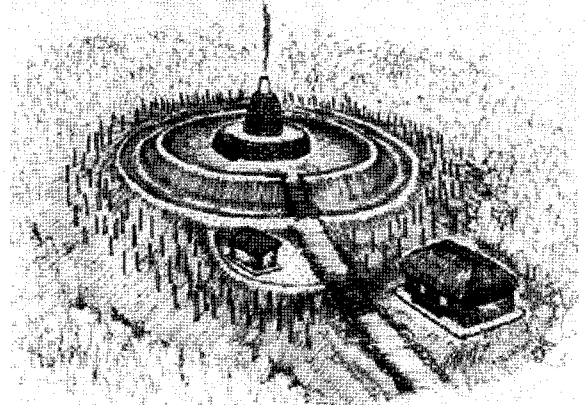


그림 16. 추정 복원도

봉수대의 전체적인 구조가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건물지는 연대 하부에 위치한 장변 21m, 단변 약 9m 정도의 반월형(半月形) 평탄지로 비정되었고 건물의 규모는 대지의 크기를 고려할 때 부엌과 방을 갖춘 3칸 정도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주위에서 기와편이 수습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산죽이나 새를 이은 초가 토담집으로 보았다¹²⁾.

(9) 함안 파산봉수

경상남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되어 있는 함안 파산봉수대는 2005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연대 및 건물지, 방호벽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연대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규모는 남북 540cm, 동서 600cm 정도로 동서축이 약간 넓은 방형의 형태를 가진다. 건물지는 생토 및 암반면 위에 쌓인 구지표를 정리하여 쌓았으며, 건물지 남쪽에는 경사면을 감안하여 잡석을 섞어 평면이 되도록 하였다.

건물지는 내부로 면석을 쌓은 구조로 조잡한 허튼쌓기의 축조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기단부 또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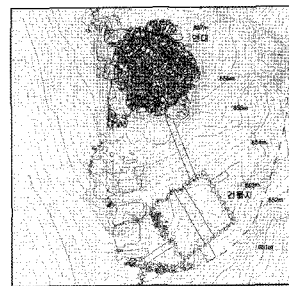


그림 17. 전체 배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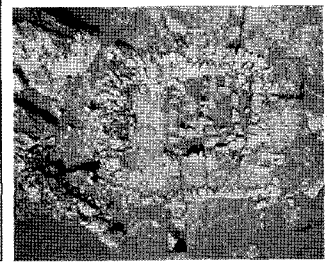


그림 18.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또한 건물지 주변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많은 기와가 확인되고 있으나 초석 및 적심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¹³⁾.

(10) 삼척 가곡산봉수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해발 84.7m의 봉화산에 위치한 가곡산봉수에서도 연대와 더불어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다. 건물지는 연대 하단부 남쪽 방향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규모는 동서길이 8.6m, 남북길이 2.6m, 높이 20cm 정도이며 대략 48×14cm, 28×16cm 정도 크기의 돌들을 1단으로 쌓은 것으로 동서 장축의 직방형 건물지로 추정된다. 그러나 건물지 내부에서 칸을 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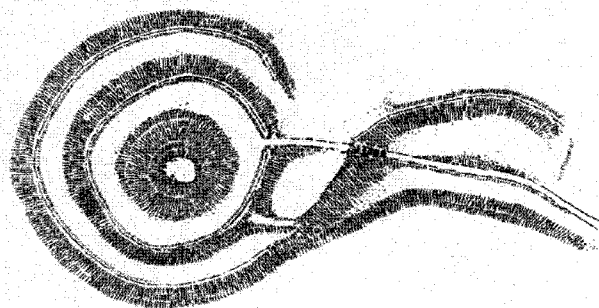


그림 15. 전체 배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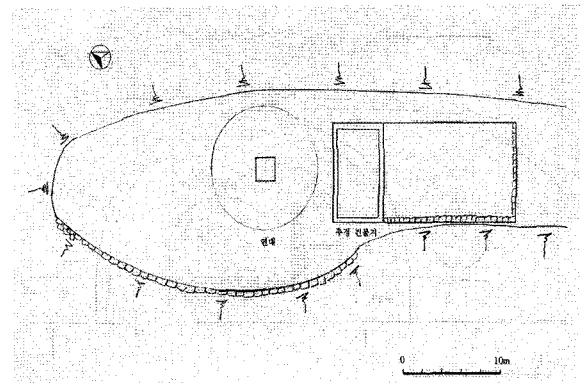


그림 19. 전체 배치평면도

12) 울산광역시 동구청(2004), 울산 천내봉수대, p.89.

13) (財)東亞文化研究院(2005), 함안 파산봉수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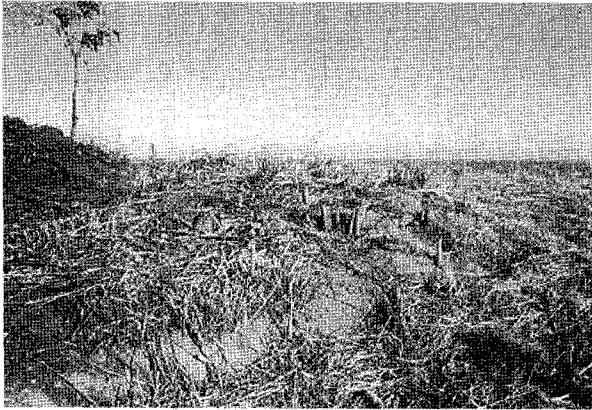


그림 20. 건물지 전경

표 3. 시·발굴 조사된 봉수대의 건물지 일람표

봉수명	건물지 규모	출토유물		추정 건물형태		비고
		와편	소토	구조	칸수	
고성 좌이산봉수	8.3×5.0m	○	○	와가(팔작지붕)	3칸	발굴조사
가장 아이봉수	7.2×2.6m	○	○	-	3칸	발굴조사
양산 위천봉수	7.5×3.0m	○	○	와가(맞배지붕)	3칸	발굴조사
밀양 추화산봉수	6.7×5.3m	○	○	와가(맞배지붕)	2칸	발굴조사
진주 광제산봉수	10.0×3.0m	-	○	초가	-	발굴조사
충주 주정산봉수	8.5×6.0m	○	○	와가	3칸	발굴조사
울산 유포봉수	-	○	-	와가(우진각)	3칸	지표조사
울산 천내봉수	10.0×5.0m	×	-	초가	3칸	지표조사
함안 파산봉수	6.0×5.4m	○	-	-	-	발굴조사
삼척 가곡산봉수	8.60×2.6m	-	-	-	-	지표조사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¹⁴⁾.

10여개의 시·발굴조사보고서상에 나타난 건물지 관련 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건물지의 규모는 대체로 가로가 6.0~10.0 m, 세로가 3.0~5.0 m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발굴조사된 대다수의 건물지에는 아궁이나 부엌 시설의 존재를 추정케 하는 소토나 재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진주 광제산봉수에서처럼 온돌유구가 발견되는 곳도 있다. 또한 건물지 주변에서는 와편이 많이 수습되고 있어 주거의 형태가 와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시·발굴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시행한 고고학자나 전문가들은 봉수군의 주거형태를 부엌과 온돌방을 갖춘 3칸 규모의 와가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IV. 결과 및 논의

봉수군의 주거공간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지분석해 본 고문헌자료와 시·발굴조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의가 가

능하다.

첫째, 주거건물의 규모는 각종 지리서나 읍지의 비치물목상에 나타나는 기록, 학술조사된 봉수대의 건물지 유구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3칸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건물지로 추정되는 부지의 규모나 일반적으로 봉수대에 상주하는 봉수군의 수가 5명 정도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매우 타당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둘째, 주거건물의 공간구성은 고립된 산상에서 봉수군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공간, 즉 취침과 취사기능을 담당한 방과 부엌은 필수적인 시설이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식량과 각종 비품을 보관하는 고방이 추가되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발굴조사된 대다수의 건물지에는 아궁이나 부엌시설의 존재를 추정케 하는 소토나 재 등이 출토되고 있고 온돌유구가 발견되는 곳도 있다는 사실에서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셋째, 주거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관해서는 비치물목상의 기록으로 볼 때 와가가 대부분이고 또한 많은 건물지에서 기와편이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보건데 상대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적은 기와가 지붕재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기와는 일반적으로 고급 관영건축에 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해 보면 다수의 봉수대에서는 강원도 산곡간의 너와집이나 울릉도의 투막집의 경우처럼 지붕은 너와를 엮되 바람에 너와가 날리지 않게 돌을 눌러 놓은 형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너와나 굴피는 봉수대가 입지한 산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며 화재의 위험성도 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현재 여러 지역의 많은 봉수대 주위에서 산죽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음을 볼 때 지리산 산죽지붕집의 경우처럼 산죽이나 억새를 이용하여 지붕을 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건물의 구조는 지금까지 발간된 학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지붕은 기와를 엮고 골조는 잘 치목한 목재로 기둥과 보를 결구한 흘처마의 굴도리집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바닥구조는 온돌난방에 일부 마루를 들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봉수군의 신분이 신양역천(身良役賤)한 지위였으며, 봉수군이 사용한 건물의 용도도 항구적인 치소용(治所用) 관아시설이라기보다 임시적인 숙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목조가구법을 사용한 건축물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발굴조사된 대다수의 건물지에서 기둥을 세우기 위한 적심석이나 초석이 잘 보이지 않고 긴 석렬유구만 확인되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물의 벽체구조는 겨울철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입지상의 자연조건과 방한방서의 효율성을 감안해 볼 때 토석이나 토벽으로 두껍게 발라 벽을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김도현(2004), 삼척지역의烽燧 연구,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博物館誌, 第11號, p.57.

V. 결 론

지금까지 봉수군의 주거공간이 지닌 특성 파악을 위해 고문헌자료와 시·발굴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첫째 주거지의 배치형태는 연대, 방호벽·호 등 봉수대 구성요소와의 인접관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보면 일곽형, 연접형, 분리형, 연대단독형으로 구분된다.

2) 각종 지리서나 읍지의 비치물목, 여지도서의 도표 등 고문헌상의 기록에 나타난 주거건물의 형태는 대부분 기와집으로 규모는 2~3칸 정도이다.

3) 시·발굴조사보고서상에 나타난 건물지 관련 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건물지의 규모는 대체로 가로가 6.0~10.0 m, 세로가 3.0~5.0 m 정도이고, 다수의 건물지에서는 아궁이나 부엌 시설의 존재를 추정케 하는 소토나 재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진주 광제산봉수에서처럼 온돌유구가 발견되는 곳도 있다. 또한 건물지 주변에서는 와편이 많이 수습되고 있어 주거의 형태가 와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4) 이러한 분석결과 봉수군의 주거형태와 구조는 3칸의 와가가 일반적으로 내부공간은 봉수군이 산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방과 부엌 등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굴조사된 대다수의 건물지에서 기둥을 세우기 위한 적심석이나 초석이 잘 보이지 않고 긴 석렬유구만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건물의 벽체구조는 토석이나 토벽으로 두껍게 발라 벽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김주홍 외(2003), 한국의 봉수, 눈빛.

2.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1999), 佐耳山烽燧臺地表調査報告書.
3. 釜山博物館(2004), 機張郡 孝岩里 爾吉烽燧臺.
4. 東亞大學校博物館(2001), 密陽 推火山烽燧臺 試掘調査報告書.
5.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2003), 晉州 廣濟山 烽燧臺 試掘調査報告書.
6.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1997), 忠州 周井山 烽燧臺 試掘 調査報告書.
7. 울산광역시 북구청(2003), 우가산 유포봉수대.
8. 울산광역시 동구청(2004), 울산 천내봉수대.
9. (財)東亞文化研究院(2005), 함안 파산봉수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10. 김도현(2004), 삼척지역의烽燧 연구,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博物館誌, 第11號.
11. 손영식(1996), 전통과학건축, 대원사.
12. 김주홍(2000), 京畿地域의烽燧研究, 祥明大學校碩士學位論文.
13. 許善道(1985), 近世朝鮮前期의烽燧制(上), 韓國學論叢 第7輯,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4. 許善道(1986), 近世朝鮮前期의烽燧(下), 韓國學論叢 第8輯,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5.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주)청구.
16.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1990), 韓國의城郭과烽燧(하).
17. 이상호(2004), 조선후기 울산지역 봉수군에 대한 고찰, 울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18. 板垣 宏(2004), 出雲の夜明け-あなたを山・烽・石神へ誘う, ワン・ライン.
19. 株式會社學習研究社(1994), 戰略/戰術/兵器/事典/①【中國古代編】.
20. 宇都宮市實行委員會(1997), 烽【とふひ】の道, 青木書店.

(接受: 2005. 10. 12)